

# 홍콩의 E-Print사 새로운 인쇄 비즈니스모델 성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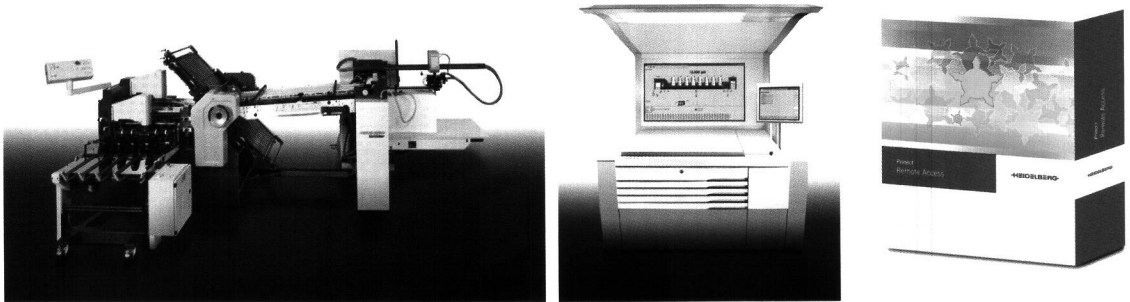
기고 | 한국하이텔베르그㈜ 김정남 과장

구립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쇄회사로 손꼽히는 E-Print에 견학을 다녀왔다. E-Print의 성공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홍콩의 E-Print는 홍콩에서 대표적인 디지털·상업인쇄회사이다. E-Print는 불과 10년 전인 2001년 10월에 7명의 적은 직원만으로 시작했으나 오늘날 5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형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혁신과 노력을 거듭해 왔다. 기존의 전통적인 인쇄환경 및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지금은 IT 기술을 접목시킨 웹 투 프린트(Web to print)를 비롯하여 합판 인쇄, 디지털인쇄, 최적화된 오프셋인쇄시스템, 빠른 납기와 고품질의 인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인쇄회사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E-Print는 회사의 전체 조직이 말레이시아, 중국 광둥, 홍콩의 분공장으로 각각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분산된 조직과 각각의 분공장들로 인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 각각의 분공장들은 하나의 통합 ERP 시스템에 의해 연결 및 관리되고 있으며 종이 서류 없는 즉 페이퍼 리스(paper-less) 작업환경을 구축시켜 회사의 모든 업무가 ERP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IT부서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용 앱(app)을 개발해서 고객관리, 작업의 수주 및 관리, 견적서발행, 공정관리, 행정에 이르기까지 회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정관리 앱에는 하이델베르크 프리넥 프레스룸 매니저(PRINECT Press Room Manager)와 연동이 되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E-Print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각각의 인쇄기들의 현재 상황 및 가동률 등을 통계화해 각각의 장비에 대한 가동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장비의 가동률에 따라 일의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작업 흐름간의 병목현상 및 에러 발생을 최소화시켰다. 이외에 각각의 작업에 대한 진행 과정도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다. IT부서에만 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회사 전체적인 온라인서비스 워크플로(workflow)를 효율적이면서 최적화시켰고 모든 공정은 문서 작업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다. 이는 곧 회사의 비용절감효과 및 에러·하자율 감소라는 결과로 연결시켰다. 모든 인쇄물들은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 및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고객의 주문 작업은 모두 바코드(Bar code)로 관리되어 주문부터 배송까지 작업 추적이 가능하며 문자메시지 알림 시스템을 운영해서 고객이 주문한 작업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함께, 고객이 직접 온라인 상에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다양한 솔루션으로 고객을 지원하는 하이델베르크

E-Print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오프라인 프린트 숍(off-line print shop)도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이 오프라인 상에서 쉽게 인쇄물을 접수할 수 있으며 작업한 데이터에 대한 오류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쇄물 접수 시 에러/하자 없이 안전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의 니즈 및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쇄설비도 최상의 생산성을 낼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다. 국내에는 도입할 인쇄기계를 검토할 때 일의 특성, 인쇄량, 효율성 및 경제성보다 어떤 특정 모델 및 사이즈에만 편중이 되는 경우가 많다. E-Print는 A1사이즈 인쇄기에서~A3사이즈 인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인쇄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로 디지털인쇄기까지 도입해서 각각의 작업 특성에 맞는 인쇄기를 배정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인쇄 시스템을 구성했다.

디지털 인쇄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디지털인쇄물 및 다품종 소량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인쇄시스템을 갖추었지만 디지털인쇄기로는 모든 다품종 소량 인쇄물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디지털인쇄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점차 늘어나는 200~300장 이상의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오프셋과 디지털인쇄의 상호보완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이델베르크 애니칼라 인쇄기를 도입을 했다. 애니칼라를 도입한 이유는 기존 오프셋인쇄기보다 조작과 관리가 간편하고, 작업준비시간이 짧고, 손지율이 기존 매엽기보다 1/10 정도로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다품종 소량인쇄물에 대해 신속한 작업이 가능해서 단기 납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고객이 당일 접수한 작업이 바로 당일 출고가 가능해져 고객 만족도를 높였고, 이는 바로 E-Print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으며, 경쟁력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E-Print의 성공사례는 현재 침체된 국내 인쇄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원가절감, 수익창출 및 경쟁력향상을 도모하려는 국내 인쇄회사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